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 지원사업

2005 지리산권 어린이캠프 결과보고서

“지리산은 내친구”

□ 주 최 :  지리산 생명연대

□ 후 원 :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차 례

1. 사업명	3
2. 사업목적	3
3. 사업개요	4
1) 사업대상 / 4	
2) 사업 진행 일정 / 4	
3) 교육의 특징 / 4	
4) 전체 프로그램 내용 / 5	
5) 활동 일자	
봄놀이 활동일지 / 7	
여름놀이 활동일지 / 9	
가을놀이 활동일지 / 18	
4. 주요 체험 프로그램 소개	20
1) 섬진강변 우리 작설차 만들기 견학 및 체험 / 20	
2) 천연염색 체험 / 21	
3) 탐방안내소에서 지리산 둘러보기 / 22	
4) 숲속 자연물을 가지고 나무곤충 만들기 / 22	
5) 갯벌체험 / 22	
6) 지리산의 정신,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 24	
7) 맹세이골 자연관찰로 탐방과 동물 발자국 만들기 / 24	
5. 사업 평가	26
1) 총평 / 26	
2) 부분별 평가 / 26	
3) 참가자 평가지 작성 내용 / 28	
6. 예산 내역서	29

1. 사업명

지리산권 어린이 캠프 - “지리산은 내친구”

2. 사업 목적

지리산권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오히려 지리산 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지리산권 어린이들(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린이)에게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문화·역사적 환경을 체험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 어린이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리산권 미래세대의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냄.

- 행정구역의 경계로 나뉘어 있는 지리산이 아닌, 산과 물이 길이 되어 소통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냈던 지리산권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임.
- 도시에 비해 소외되어 있고,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에게 지역내 환경과 문화의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함.
- 차기 사업으로 구상중인 지리산권 교과서 제작 연구모임의 현장학습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전년도 본 단체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한 <지리산권 생태 문화 가이드 양성교육>의 수료생들이 체험활동 자원 교사로 활동하는 유기적 관계 구축
- 지역 미래세대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내 삶의 환경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가꿔가는 지역내 교육으로 정례화하고자 함.

3.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

- 어린이 : 지리산권 5개시군-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하동·산청·함양의 초등학교 학생
4~6학년 어린이 25명 (한부모 저소득층 어린이 우선 선발)
- 선생님 : 자원활동 모듬 선생님 및 체험지도 10인

2) 사업 진행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3월~4월	○ 캠프 일정 및 체험 장소, 강사진 구성 ○ 지원교사 그룹 선정 ○ 홍보 대상 및 지역별 모집 방법 구상
참가대상 모집 및 홍보	4월내	○ 각 지역별 모집 주체 및 학교, 기관 연락 ○ 교육 프로그램별 장소 및 진행자 섭외 ○ 신청서 접수 및 선발, 참가자 일정 공지 ○ 각 교육프로그램별 기록지 작성
본 캠프	봄/여름/가을 (연3회)	○ 봄캠프(1일)/여름캠프(3박4일)/가을캠프(1일) ○ 계절별, 지리산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이동 버스 운행
평가 및 후속조치	12월	○ 참가자 평가서 분석, 내부 평가회 ○ 최종 보고서 제작 ○ 참가 어린이 사진, 기록지 발송

3) 교육의 특징

- 지리산권의 전체 면적은 상당히 넓어 5개시군 3400km²입니다. 지리산권에 살아도 타지역을 체험하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지리산권의 동서남북 지역과 사계절을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지역의 삶과 문화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지난해 '환경지도자양성교육과정-지리산권 생태·문화 가이드 양성교육'의 수료생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지역과 해당 체험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높은 현지 강사들로 교육팀을 구성

하였습니다.

- 지역의 농촌 지역 어린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부모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우선 선정하여 참가비와 교통수단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실제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환경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 농촌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중학교 이후 외부 도시로 유학을 떠나보내는 현실을 볼 때,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지역내에서 교육을 지속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여름 캠프에서 갯벌학교와 연계하여 갯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의 대표적인 강인 섬진강이 남해로 흘러가 결국 남해바다를 이룬다는 것을 직접 가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모든 지역을 유기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확장된 환경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 대규모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체험교육으로서 교육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판단 아래, 소규모 인원으로 교육대상을 선발하여, 지리산권 마을에 있는 살림집 가운데 전통한옥을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마을을 깊이 체험하게 하고, 환경친화적인 캠프가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4) 전체 프로그램 내용

구분	일자	시 간	주 제 (체험교사)	장 소
봄 놀이 지리산남부지역	5월 15일 (일)	08:00-10:0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10:30-11:00	지역별 참가자 인사 나누기 및 캠프 안내	매암차박물관(경남 하동)
		11:00-11:30	우리 차 소개 및 만드는 법 설명(강동오 박물관장)	"
		11:30-12:30	차밭에서 찾았 따기 및 비벼 널기	"
		12:30-13:00	점심 먹기	"
		13:00-13:40	버스 이동	지리산 탐방안내소(구례)
		13:40-14:30	지리산 탐방안내소 견학 및 지리산 동식물 안내	"
		14:30-15:30	반달가슴곰 만나기	반달가슴곰 관리림(구례)
		15:30-16:00	기록하고 느낌 나누기, 간식	곰 센터 앞마당(구례)
		16:00-17:3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귀가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여름 놀이 지리산북부지역 / 남해	7월 27일 (수)	13:00-14:0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14:00-15:00	인사 / 캠프 공지 / 모둠별 모임 / 이름표 만들기	남원시 실상사
		15:00-18:00	숲속 체험 - 나무 곤충 만들기	삼정산 자락
		18:00-19:00	저녁식사 후 숙소 이동	남원시 실상사
		19:30-20:00	점정리 후 모둠 발표	숙 소
		20:00-21:00	지리산 슬라이드 발표	"
		21:00-21:30	하루 일과 기록하고 잠들기	"
		7:00-7:30	일어나 씻고 자리 정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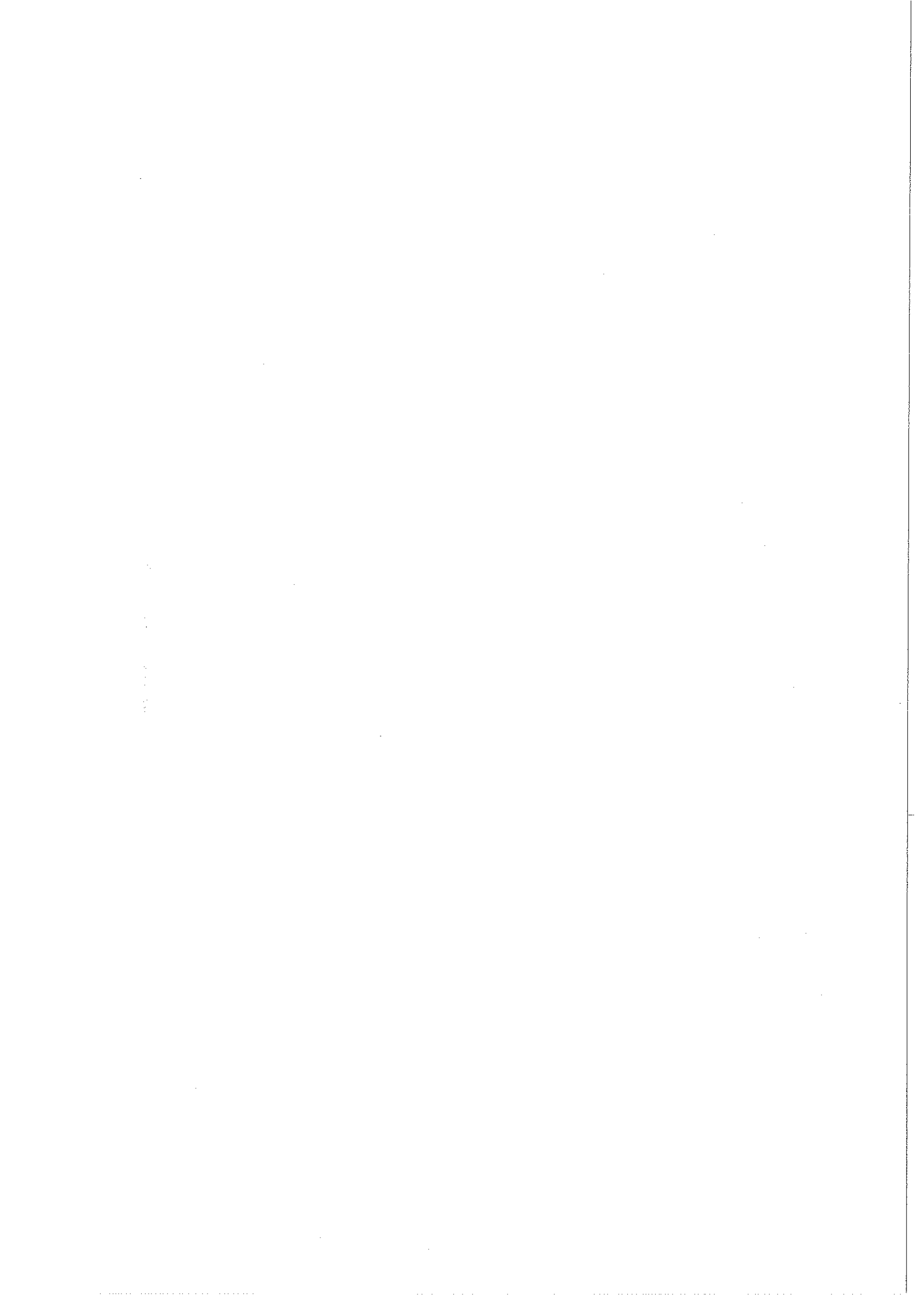
7월 28일 (목)	7:30-9:00	아침식사 / 점심 김밥 도시락 만들기	"	
	9:00-9:30	염색장으로 이동		
	9:30-12:00	천연 염색 체험	산내면 염색체험장	
	12:00-12:30	점심 도시락 식사 및 요리왕 선발대회	뱀사골 계곡 야영장	
	12:30-14:30	하천 생태 탐사	"	
	13:00-15:00	신나는 계곡 물놀이	"	
	15:00-17:30	집으로 이동, 씻고 휴식 *갑작스런 소나기로 인해 물놀이 중단	숙 소	
	17:30-19:00	저녁 식사	인근 식당	
	19:00-20:00	기록하기, 휴식		
	20:00-21:30	대청마루에서 모듬별 장기자랑 대회, 게임	숙 소	
	21:30-	잠 자기	"	
7월 29일 (금)	6:00-6:30	일어나기 / 씻기	"	
	6:30-8:30	버스로 이동		
	8:20-9:00	섬진강변 감상 (아침 식사)	섬진강 조망공원(경남 하동)	
	9:00-10:30	버스로 이동		
	10:30-13:00	남해 갯벌 생물 관찰하기, 슬라이드 강의	남해갯벌학교(경남 남해)	
	13:00-14:30	죽방염 생산지 견학 : 점심 식사	남해	
	14:30-16:30	버스로 이동		
	16:30-18:30	자유 휴식 *갑작스런 소나기로 인해 물놀이 취소	남원시 삼화리 계곡	
	18:30-20:00	저녁 식사		
	20:00-20:30	모듬별 모임	숙 소	
	20:30-21:30	밤하늘 별자리 관찰	"	
	21:30-22:30	지리산 골든벨 퀴즈대회, 숯불에 감자 굽기	"	
	23:00-	잠 자기	"	
7월 30일 (토)	8:00-9:00	일어나기 / 씻고 아침 식사	"	
	9:00-10:30	숙소 청소하기 / 짐 챙기기	"	
	10:30-11:30	굽이굽이 마을 길 따라 걷기	숙소~삼화리~입석리 마을	
	11:30-12:20	사찰 발우공양 식사	남원시 실상사	
	12:20-13:00	정다운 모듬친구들에게 엽서 쓰기 / 기념촬영	"	
	13:0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귀가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가을 놀이 지리산 동부 지역	10월 16일 (일)	8:30-10:3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10:30-12:00	남명 기념관 안내 및 산천재 둘러보기	남명 기념관(산청 덕산)
		12:00-1:00	점심 식사	
		1:00-2:00	대원사 유평계곡으로 이동	대원사 유평계곡
		2:00-3:30	맹세이골 자연탐방로 자연해설/동물 발자국 뜨기	맹세이골 자연관찰로
		3:30-4:00	둘러앉아 모두 모임 / 간식 / 기록하기 / 인사	"
		4:00-	각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귀가	구례,남원,산청,하동,함양

* 이상은 실제 진행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날씨 관계로 원래 계획서에서 일부 프로그램 취소 및 변동 있었습니다.


5) 활동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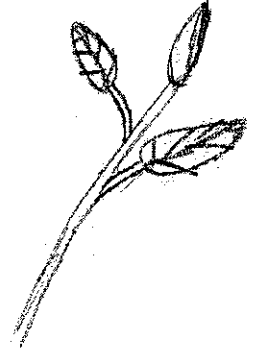
가. 봄놀이 (당일 프로그램)

세부 활동명	봄 놀이 - 차 만들기 체험과 야생동물 만나기				
교육 일시	2005년 5월 15일(일)	교육 장소	하동 약양 ~ 구례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강동오	연락처		
	약력	매암차문화박물관 관장			
강사 2	성명	왕호숙	연락처	061-783-9106	
	약력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담당 직원			
강사 3	성명	이윤수	연락처	061-783-9120	
	약력	국립공원 증복원센터 반달가슴곰관리팀 직원			
교육 내용	<p>봄놀이는 지리산 남부권의 자연과 삶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지리산 남부권-경남 하동, 전남 구례권-은 지리산 남부능선과 넓은 들판, 섬진강의 멋진 풍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p> <p>먼길을 달려 한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의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고, 지리산권에 사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설레임과 반가움이 넘치는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p> <p>야생차의 고향으로 유명한 하동의 차밭에서 차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차 만들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차밭에서 차나무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직접 탄 차잎으로 차를 만들어 조금씩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p> <p>그리고 지리산의 모든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탐방안내소에서 전시물도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슬라이드 교육도 받고, 반달가슴곰 관리팀에서 보호중인 반달가슴곰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p> <p>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리산 전체의 모습과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리산 남부 지역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준비물	기록지 / 점심 도시락 (일회용품 없이 그릇 30벌 준비)		참고 자료	<지리산 문화권>(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저, 역사공간)	
평가	<p>-전체적으로 시간 배분과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으나, 비가 온 직후라서 섬진강변에 내려가 야생상태의 수달과 동물 흔적 관찰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음.</p> <p>-서로 다른 지역 아이들과 친해지기에는 당일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음.</p>				



□ 봄 놀이 -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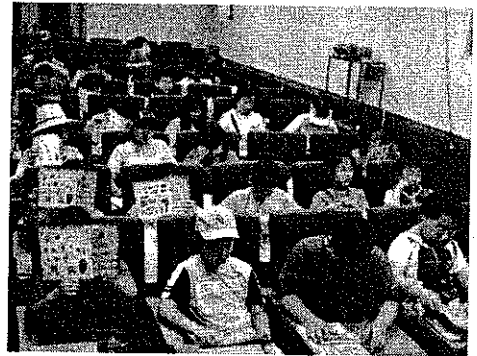
차나무 새순 따기  → 새순을 두 주먹으로 조를
 딱조들막 한다 → 힘을 주어 둥그렇게 만든다 →
 케에 던져 퍼트린다 → 100°C가 넘는 스팀에
 찌거나 햇빛에 그대로 말린다 → 차주전
 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는다 → 차식힌것에
 넣고 다시 찻잔 따른다 → 마신다.



차밭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기록한 차 만드는 법



매암차문화박물관 관장님께 차 이야기 듣기



지리산의 야생동물 슬라이드 교육



차밭에서 찻잎을 직접 따보아요



사육장에 있는 반달곰 만나기

나. 여름 놀이 (3박 4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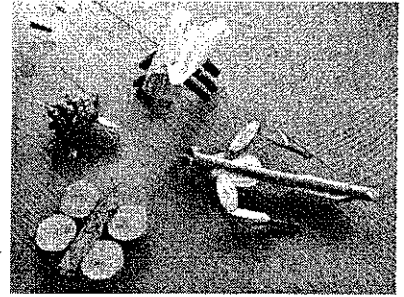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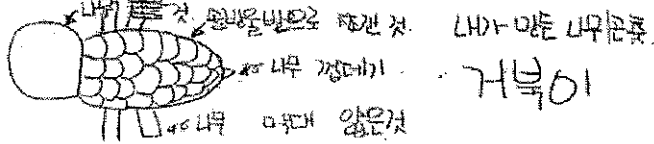
세부 활동명	여름 놀이 (첫째날)				
교육 일시	2005년 7월 27일 (수)	교육 장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정 상 길	연락처	063-636-3774	
	약력	목기 공예가 나무 공방 운영			
강사 2	성명	김 해 경	연락처	063-636-1945	
	약력	지리산생명연대 교육부장			
강사 3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여름놀이는 지리산 북부권, 그리고 섬진강이 흘러가 바다를 이루는 남해 갯벌의 자연과 삶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리산 북부권은 백무동과 뱀사골로 알려진 계곡과 산과 산촌 마을이 어우러져 있습니다.</p> <p>첫날, 지리산 전역에서 실상사로 모인 어린이들의 인사와 모듬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정산자락 마을 뒤편 숲으로 가서 캠프 기간 동안 쓸 나무젓가락과 나무곤충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나무공예를 하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주위 자연물들(나뭇가지, 솔방울, 나무껍질)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모양을 제작하였습니다.</p> <p>시찰식 저녁밥을 먹고 모듬별 이룸짓기와 소개를 하였습니다. 함께 웃으며, 며칠간의 캠프를 함께할 친구들은 벌써 친해져버렸습니다. 이어 지리산의 식물과 동물, 곤충, 그리고 환경 피해 사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주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슬라이드로 감상하였습니다.</p> <p>숙소로 사용하는 전통한옥 마당에 둘러앉아 쏟아지는 별밤에 감상하는 사진들이 야외 영화 감상과도 같은 멋과 흥취가 있었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들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p>				
준비물	기록지 / 프로젝터,노트북,영사막 / 나무공예 도구 (톱,본드,전정가위)	참고 자료	<반쪽이의 나무곤충 만들기> (최정현 저 / 한겨레신문사)		
평가	<p>○ 정해진 틀에 맞춰진 나무공예가 아니라, 주위의 자연물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음.</p> <p>○ 슬라이드 강의를 통해 캠프 전반에 걸쳐 지리산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공유함.</p> <p>○ 아이들의 나무공예 작품들을 모아두었다가 마지막날 나눠줘야 할듯(대부분 파손)</p>				

□ 여름 놀이 - 첫째날 활동 사진 (7.27)

* 텃밭의 민들레

*아래에서부터 대나무를 막대 모양으로 잘라 푸셔서 그것을 모서리마다 사포로 비벼서 다듬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정사를 맡은 후 완성했다.

* 내가 만든 곤충 그림



짜자잔!! 숲속에서 찾은 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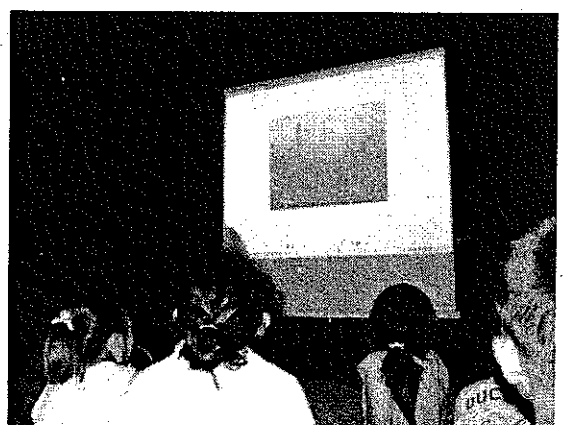
나무 공예 시간-선생님의 나무 다루기 시범



어떤 놀이기구보다 재밌는 울퉁불퉁 트럭 타기



모기장 안에서 나누는 귀신이야기 정말 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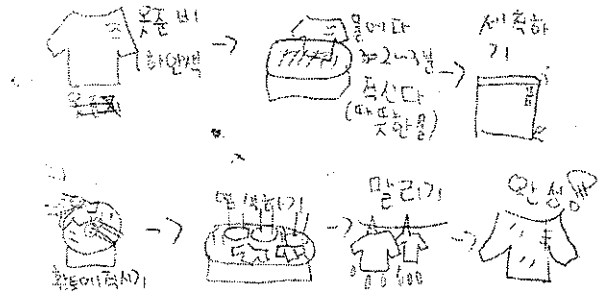
슬라이드 교육-우리 지리산 정말 멋져요!

세부 활동명	여름 놀이 (둘째날)				
교육 일시	2005년 7월 28일(목)	교육 장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성용숙	연락처	063-636-1516	
	약력	천연염색 전문가 남원시 춘향골 천연염색 운영			
강사 2	성명	정상순	연락처	063-636-1945	
	약력	남원시 춘향골 천연염색 회원			
강사 3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아침 겸 점심도시락 마련을 위해 김밥 요리대회를 하였습니다. 모둠별로 정성껏 김밥을 싸고 염색장으로 갔습니다. 지역에서 천연염색을 하시는 주민들의 지도로 황토염색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염색용 흰 티셔츠를 삶아 콩물을 메기고, 만들어놓은 황토 염료에 담가 비볐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어린이들은 서로 염료를 튀기고 온몸을 황토물에 담가 비비며 '황토인간'이 되어 장난을 쳤고, 온몸이 황토물로 푹 젖은 채 냇가로 갔습니다.</p> <p>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계곡에서 계곡 생물 관찰은 할 수 없었고, 아쉬운 마음에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숙소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었습니다.</p> <p>물놀이가 비 때문에 일찍 끝나버려 조금은 다들 실망한 빛이 역력했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누마루에 모여앉아 모둠별로 간단한 게임도 하고, 각자 준비한 재밌는 장기 자랑도 하자 밤이 어둡도록 한바탕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p>				
준비물	황토 염색용 흰 티셔츠 / 김밥 재료 / 도시락 통 / 장기 자랑 및 요리대회 상품들		참고 자료		
평가	<p>○ 황토염색을 하며 온몸을 황토물에 담그고 장난을 치며 염색을 하고 냇가에서 몸을 씻었던 경험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체험이 되었음.</p> <p>○ 비가 와서 정해진 하천교육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나, 급히 대체된 조별 장기자랑과 게임이 개인들의 표현 기회도 되고, 모둠별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참가 어린이들이 서로 깊이 친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음.</p>				

□ 여름 놀이 - 둘째날 활동 사진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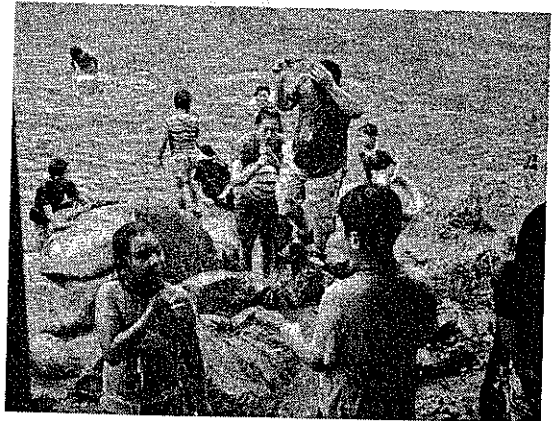
“끓고 맛나게!”-김밥 요리왕 선발대회



황토염색은 주물럭주물럭 정성이 중요해요



옷을 염색한 건지 우리 몸을 염색한건지 모르겠어요. 짜자잔! 우리는 황토인간!



신나는 계곡 물놀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옥 대청마루에 모여앉아 게임이 한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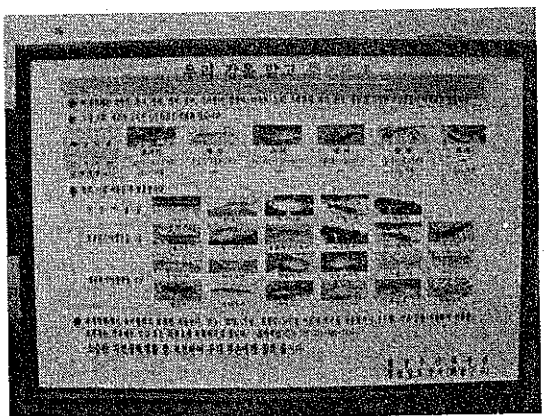
어때요? 귀엽죠? - 모듬별 장기자랑 시간

세부 활동명	여름 놀이 (셋째날)				
교육 일시	2005년 7월 29일(금)	교육 장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남해 갯벌학교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박언주		연락처	055-862-8799
	약력	남해 갯벌생태학교 "모심과 실림" 교장			
강사 2	성명	김수미		연락처	063-636-5388
	약력	별자리 체험 강사			
강사 3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남해 갯벌로 출발하였습니다. 잠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졸린 눈을 비비며 버스에 올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썰물 시간을 맞추려니 새벽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쯤 아름다운 섬진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섬진강변 생태공원에 내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망원경으로 섬진강의 작은 물새들도 관찰하고 표지판을 통해서나마 많은 섬진강의 야생 동물들도 익혔습니다.</p> <p>남해 갯벌생태학교에 도착하여 곧바로 강진만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작은 실개천에서 방개와 순비꽃, 도둑게 등을 관찰하고 암수 구별법 등을 배우고, 갯벌에 도착해 넓적 콩게들의 재미있는 움직임, 갯벌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밀물이 들기 시작한 바닷물에 들어가 고향도 치고, 섬진강물이 섞였을 바닷물에서 지리산 냄새도 맡고...조개껍질 목걸이도 만들고, 지리산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숙소 마당에 누워 별보기 체험을 했습니다. 별자리 선생님의 안내로 별자리를 익히고, 전설도 듣고 여름 별자리 관찰하는 법을 익히고 보니 하늘 가득 이야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p> <p>지리산에서 흘러보낸 맑은 물줄기들이 섬진강을 이루고, 그 섬진강이 남해바다로 흘러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지리산과 계곡과 바다가 모두 한몸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p>				
준비물	기록지 / 여벌옷 등 물놀이 준비물		참고 자료		
평가	<p>○ 갑작스런 소나기로 프로그램 일정 차질 생김.</p> <p>○ 갯벌 생태 체험이 강사와 세부적인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 위주의 강의로 갯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시간이 없어 부족했음.</p> <p>○ 지리산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즐거운 공부 기회를 주었고, 마당 별보기 체험을 통해 밤의 신비를 전해줄 수 있어 좋았음.</p>				

□ 여름 놀이 - 셋째날 활동 사진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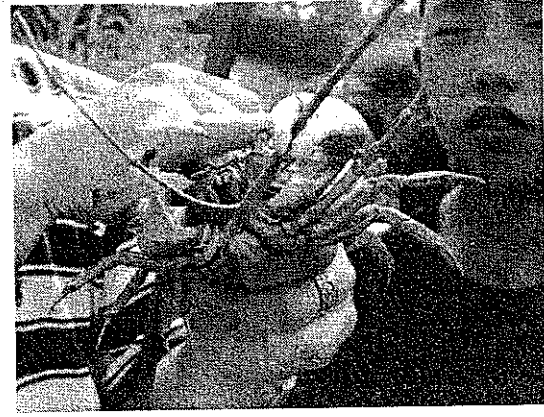
갯벌에서 관찰한 생물들 그림



섬진강변의 어족자원 안내판



갯벌로 흘러가는 마을 하천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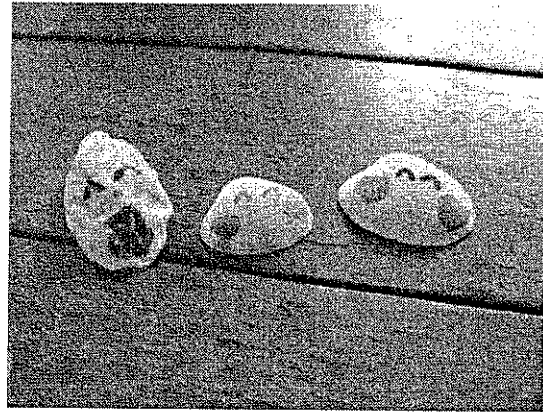
독으로 막혀 계들의 이동이 제한된 모습



이 바닷물에 섬진강 물도 섞여있대요



갯벌학교에서의 슬라이드 교육



우리가 만든 조개껍질 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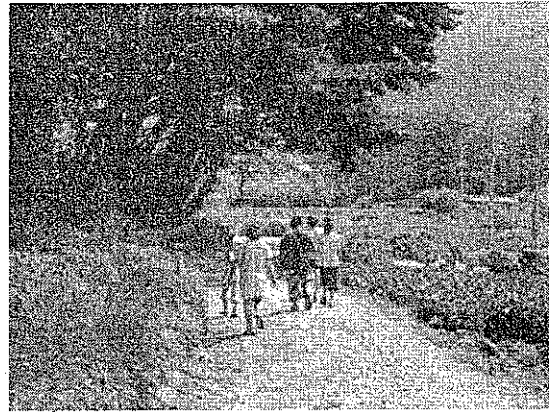
마당에서 똥굴며 벌자리 관찰하기

세부 활동명	여름놀이 (넷째날)				
교육 일시	2005년 7월 30일(토)	교육 장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연락처		
	약력				
강사 2	성명		연락처		
	약력				
강사 3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캠핑의 마지막날, 숙소와 짐을 정리하고 숙소가 있는 마을에서 실상사까지 마을 뒷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하였습니다.</p> <p>실상사 큰방에 모여 캠핑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서로 엽서를 써서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 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며 마무리 모임을 하였습니다.</p> <p>3박4일 동안의 캠핑에서 정이 흠뻑 든 친구들은 가을 캠핑에서 다시 만날 날을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p>				
준비물	친구들과 나눌 엽서	참고 자료			
평가	<p>○ 마을 길 산책을 하며 지리산 북부권 산마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체험</p> <p>○ 마무리 모임 때, 캠핑에서 있었던 일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즐거웠던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p>				

□ 여름 놀이 - 넷째날 활동 사진 (7. 30)



마지막날, 모듬별로 간식을 먹으며 캠프 마무리모임



마을 길 산책하기. 산 넘어서 이웃 마을 가기



정들었던 친구들에게 엽서를 써서 나눠요



단체사진 마무리는 역시 시끌벅적한 장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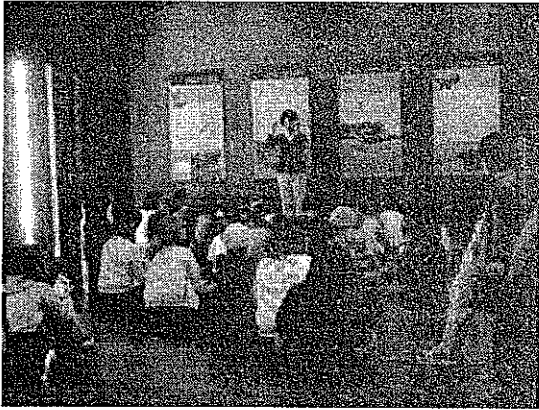


정들었던 한옥집 앞에서 한 장. 헤어지는 게 아쉬웠을까. 사진에서 빠진 아이들은 장난이 싸움이 되어 토라져서 안찍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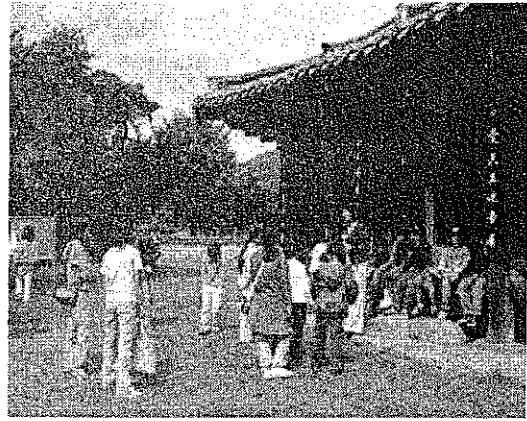
다. 가을 놀이 (당일 프로그램)

세부 활동명	가을 놀이				
교육 일시	2005년 10월 16일(일)	교육 장소	경남 산청군 일대	교육 인원	25명
강사 1	성명	강 정 숙	연락처		
	약력	산청군 문화해설사			
강사 2	성명	맹세이골 자연해설가들	연락처	055-972-7771	
	약력	지리산국립공원 맹세이골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모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강사 3	성명		연락처		
	약력				
교육 내용	<p>가을 놀이는 지리산 동부권의 자연과 삶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지리산 동부권-경남 산청은 지리산의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산자락입니다. 특히 산청군 덕산 지역은 남명 조식 선생님의 서원과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지리산의 큰 어른 남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명 기념관에서 해설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산천 재도 가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리산국립공원 맹세이골 자연탐방로에 갔습니다.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의 이야기도 듣고, 학년별로 해설사 선생님과 숲길을 걸으며 가을 숲을 관찰하고, 1급수 하천 생물들도 관찰하고, 산촌 사람들이 살았다는 작은 화전민의 집에도 가보고, 마지막으로 찰흙으로 동물 발자국 도장 만들기도 해 보았습니다.</p> <p>지리산 동부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름캠프에서 정이 든 친구들을 다시 만나 반가운 시간이 되었습니다.</p>				
준비물	남명 기념관 리플렛 동물 발자국 제작용 찰흙	참고 자료	<지리산 문화권>(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저, 역사공간) <답사여행의 길잡이-지리산자락>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평가	<p>○ 남명 조식 선생님에 관한 해설이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어려웠음. 긴 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로 통제. 어린이 전문 해설가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해설사 선생님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어린이용 자료를 따로 제작해 알기 쉽게 자체 교육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p> <p>○ 맹세이골 탐방로가 산과 계곡과 산촌 문화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좋은 탐방코스로 보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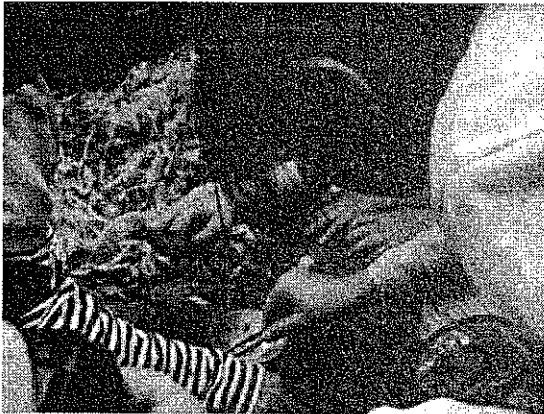
□ 가을 놀이 -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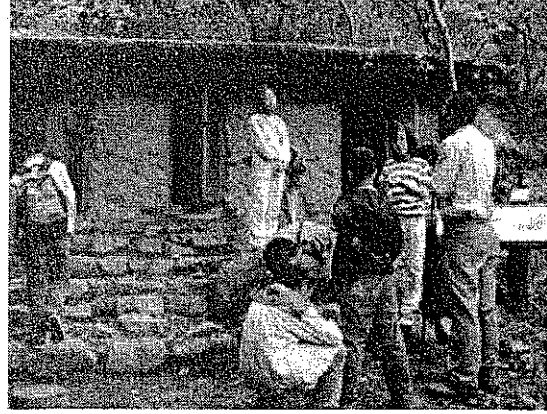
남명 기념관에서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설명



산천재에서 남명 선생님의 가르침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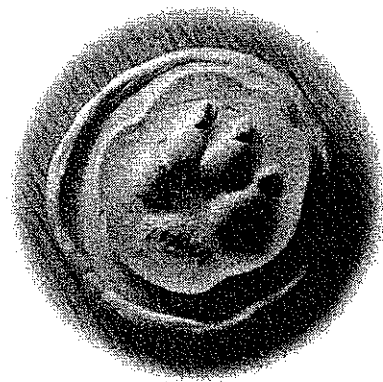
계곡 1급수 생물 관찰하기 - 옆새우



화전민들이 살았던 집. 열일곱명이 한집에 살았대요



찰흙으로 동물 발자국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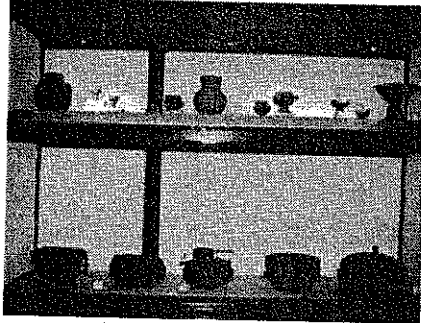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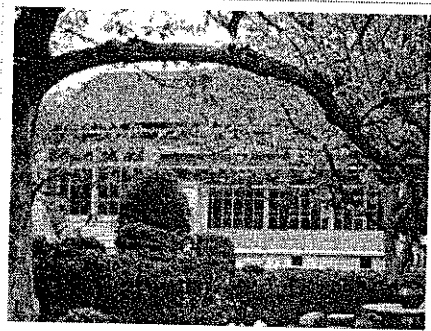


완성된 너구리 발자국 모양

4. 주요 체험 프로그램 소개

*다른 단체의 환경 교육에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몇가지 특징적 체험의 간략 정보 서술.

1) 섬진강변 우리 작설차 만들기 견학 및 체험



도하였습니다.

☆간단한 발효차 만들기 : 새잎을 골라 뜬 후, 깨끗한 손으로 뭉개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어 여러 차례 비벼 그늘에서 채반에 널어 말립니다.

가. 장소 소개

남녘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지리산은 그 경치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 놓은 것과 같이 산세가 뛰어나며 예로부터 산 주변의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차나무가 재배되었습니다.

매암다원은 이 지리산 아래 악양땅에 20,000여평의 다원을 40년간 자연농법으로 가꾸어낸 친환경적인 생태다원입니다. 다원과 찻집과 차박물관이 어우러져 우리차를 느끼고 체험하기에 좋습니다.

>>> 매암 차문화 박물관

☆개관 및 시간

화요일, 일요일 : 10:00-18:00 (동절기)

10:00-19:00 (하절기)

* 입장료 없음. 매주 월요일은 휴관

* 연락처 : 055-883-3500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단체 관람

단체관람일 경우 사전에 박물관에 예약하고, 학생들의 경우 지도교사나 성인 인솔자의 동반을 권합니다.

나. 체험 소개 : 우리차 만들기

차잎을 따서 고르기를 마친 차잎은 참나무 장작불에 달군 백동솥에서 튀음하여, 명석 위에서 일일이 손으로 비벼는데 이를 유념이라 합니다. 비벼진 차잎은 전통은돌방식으로 재현된 황토방에서 수분을 제거시키기 위한 건조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마지막 가양 처리하는데, 가양 처리는 백탄 솥불에 달군 솥에서 보이지 않는 수분을 마지막으로 제거시키면서 차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전과정을 다 해보기엔 시간상 제약이 있어 간단한 방법의 발효차 만들기를 시



* 참조 : 차 만드는 과정

채엽 - 생엽선별 - 덫음 - 유념(비비기) - 털기 - 건조 - 선별 - 가양 - 포장



< 매암차문화박물관 오시는 길 >

2) 천연염색 체험

가. 장소 소개

남원시 산내면의 귀농자들이 운영하는 춘향골 천연염색 체험장은 강사의 설명과 지도로 황토염색, 치자, 오배자, 감물, 양파 등 다양한 염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춘향골 천연염색장

- ☆ 이용 시간 : 사전 예약 필수. 원하는 시간에 이용
- ☆ 이용료 : 강사로 10만원, 염료비 실비(염료에 따라 비용 차등), 염색용 천이나 티셔츠는 개별 지참 (염색장에서 구입도 가능)
- ☆ 연락처 : 063-635-1516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나. 체험 소개 : 간단한 황토염색

- ㉠ 염료 준비 : 황토를 물에 풀어 휘저어 모래나 거친 흙을 가라앉히고 황톳물을 따라내 하루씩 가라앉힙니다. 이것을 '수비'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입자가 고운 황토염료를 얻어냅니다.
- ㉡ 천의 정련 : 새옷은 천에 기름성분이 남아 있으므로 꼭 삶아 뺍니다. 그 후 콩물에 담가 비벼줍니다.
- ㉢ 황톳물에 염색하고자 하는 천을 넣고 팔래하듯이 최대한 많이 주무릅니다. 많이 주무를수록 곱게 물이 듭니다. 가볍게 짠 후 그대로 말립니다.
- ㉣ 황톳물이 안나올 때까지 행구어 말립니다.

3) 탐방안내소에서 지리산 둘러보기

가. 장소 소개

지리산국립공원 남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탐방안내소에는 지리산의 온갖 동식물 표본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들을 둘러볼 수 있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지리산 전체를 둘러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지리산 탐방안내소

☆ 이용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1:00 / 2, 4주 월요일 휴무)

☆ 이용료 : 무료

☆ 연락처 : 061-783-9106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 숲속 자연물을 가지고 나무곤충 만들기

이 체험은 숲속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자연물을 활용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멋진 나무곤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쪽이의 나무곤충 만들기>와 같은 전문 도서를 참조할 수 있지만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정교하게 다듬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연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안내가 아니어도 목공용 본드나 칼, 가위 등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이 있으면 아이들 손끝에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 준비물 : 목공용 본드(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작은 톱, 정원 가위, 칼

5) 갯벌 체험

가. 장소 소개

남해갯벌학교 <모심과 살림>은 남해군 진목리 갯벌가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많은 갯벌 체험 행사들이 있고, 갯벌생태교육실의 표본 관람과 슬라이드 영상교육과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갯벌체험행사들이 갯벌을 망치는 일이 있어 비난을 받기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남해갯벌학교의 체험은 갯벌의 생물을 잡고 채취하고 마구 밟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관찰중심의 소규모 인원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감춰진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경외심을 가지고 느끼게 해주는 갯벌체험이 많은 어

런이들에게 좋은 환경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 강진만 갯벌

남해 강진만 갯벌은 약 6천년 전에 형성된 갯벌로 인근한 사천만, 광양만 및 북쪽의 지리산과 연결된 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진만 갯벌의 종류는 모래와 빨 및 자갈 등이 혼재된 혼합갯벌입니다.

작은 갯벌 안에 빨갯벌, 모래갯벌 등 다양한 종류의 갯벌이 분포되어 있기에 한곳에서 여러 가지 저서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해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남해안의 가장 살아있는 갯벌로 현재 습지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해해역 갯벌의 전형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저서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철새들이 계절 따라 이동중의 잠깐 쉬는 쉼터로 혹은 월동지로 머무는 습지이기도 합니다. 새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중한 소득원으로 바지락, 꼬막, 새꼬막, 피조개 등 아낌없이 인간에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의 땅이기도 합니다.



나. 체험 안내

>> 당일 갯벌체험 프로그램 안내

☆ 운영 시기 : 갯벌생태체험 4월 말 - 10월 초

☆ 참가인원 : 40명 - 80명 이내 (갯벌보호 관계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참가비 : 교육비 1인당 5,000원 (점심, 여행자보험은 참가자 부담)

☆ 프로그램 내용

- ① 사전 실내교육 60분 (갯벌생태영상 교육 - 30분, 갯벌생태전시실 교육 - 30분)
- ② 갯벌현장학습(90분 / 이동시간은 왕복 약 20분)
- ③ 몸 씻기
- ④ 창작활동 (조개껍질로 목걸이 만들기 약 30분)
- ⑤ 점심 식사 (싸운 도시락을 학교 나무 그늘 아래서 먹습니다 / 약 30분)
- ⑥ 전체 활동시간 : 약 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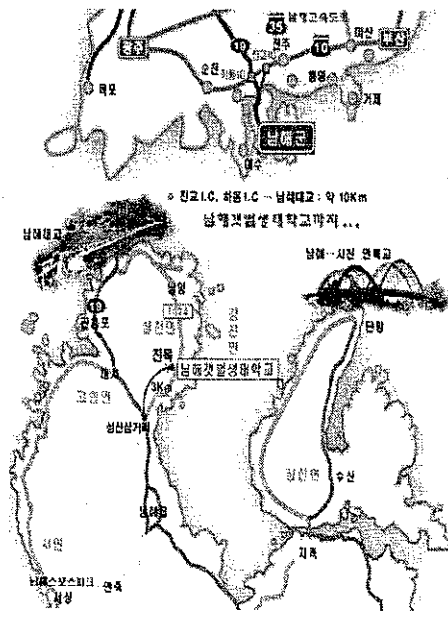
☆ 참가자 준비물 : 갯벌 체험용 옷(상,하의 및 속옷 까지), 운동화(샌달 안됨, 반드시 여벌 운동화 준비-갯벌은 해수욕장이 아님),모자, 수건 등 기타 개인 준비물, 갯벌안내 자료집은 학교에서 준비

☆ 유의할 점

- 물때에 맞추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 간조시간이 오후 2시라면 최소한 2시간 전에 도착하셔야 체험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 남해갯벌생태학교 <http://www.wsn.or.kr>

055-862-8799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남해갯벌체험학교 '모심과 살림' 가는 길>

6) 지리산의 정신,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가. 장소 소개



서북쪽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우뚝 솟아있고, 그곳에서 발원한 물이 중산, 삼장을 흐르다가 합쳐져 덕천을 이루면서 아담한 들판을 여는 곳에 산천재가 있습니다. 이 산천재가 있는 경남 산청군 덕산면은 지리산의 큰 어른, 남명 조식 선생님의 자취와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선중기의 위대한 학자였던 남명 조식 선생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과 자신을 닦았으며, 만년에 덕산 산천재(山天齋)에 머물며 후학을 키

웠고, 그 앞에 있는 덕천서원(德川書院)은 사후에 선생을 추모하여 세워졌습니다.

남명의 학문은 스스로 강조한 바와 같이 경의(敬義)로써 대표되는데 경(敬)은 안을 끈게 하는 것이고 의(義)는 경(敬)한 바를 밖에서 실행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을 답고 싶어 환갑에 지리산으로 들어왔다는 남명선생은 살아생전 산천재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며 남명 선생의 정신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체험 안내

산천재의 단아한 마루에 앉아 글을 배우고, 남명기념관 전시장의 잘 정돈된 유물 등을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둘러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남명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남명 기념관

남명기념관은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고 선생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경의사상(敬義思想)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8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남명선생과 관련된 유물 전시실과 영상정보실, 교육관,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외부 공간에는 신도비, 남명석상, 여제실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면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람시간 : 10:00-18:00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 연락처 : 055) 973-9781 <http://www.nammyung.org>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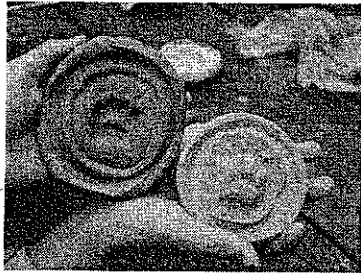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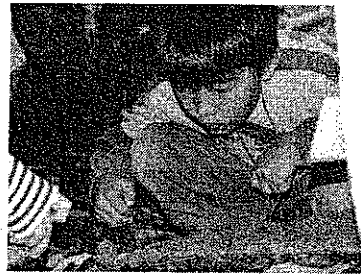
7) 맹세이골 자연관찰로 : 탐방과 동물 발자국 만들기

가. 장소 소개

지리산 동부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국립공원 유평매표소를 지나 30분 가량 대원사 방향

으로 올라가면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대원사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숲과 계곡과 산촌살림의 흔적을 함께 볼 수 있는 자연관찰로가 있습니다.

나. 체험 안내 : 자연관찰로 탐방과 야생동물 발자국 찍기
 맹세이골 자연관찰로는 지리산의 풍부한 식생도 관찰할 수 있고, 1급수 계곡의 엽새우와 가재 등 하천 생물도 관찰하고 화전민의 집터와 숯가마 흔적도 볼 수 있어 다양한 생태, 문화 체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관찰로에서 동물들의 발자국 모형을 찰흙에 찍어 표본을 만들어 모래판에 찍어보면서 야생동물을 가까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대원사에서 지리산 고찰의 문화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맹세이골 자연관찰로 자연해설 안내

☆ 운영기간 : 3월 ~ 11월

☆ 운영장소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맹세이골자연관찰로

☆ 해설자 :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또는 자연해설가

☆ 참가인원 : 1회 20명 선착순 모집(전원 인터넷 접수)

☆ 준비물 : 필기구, 편안한 복장, 운동화 등

☆ 참가신청 : 인터넷 예약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npa.or.kr/chiri>)

☆ 참가비 : 입장료는 참가자부담 (어른 1,6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

- ☆ 주요내용 :
1. 호랑이가 살았다는 맹세이골
 2. 소나무와 함께 했던 우리민족
 - * 3. 정말 요강이 얹어질까 북분자딸기!
 4. 숯은 어떻게 만드나요?
 5. 산골에서는 이런 집에서 살았대요!
 6. 야생동물 발자국 찍기 체험

5. 사업 평가

1) 총 평

지리산권역의 어린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첫번째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컸습니다. 지금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인 다양한 주민층이 무너진 극도의 노령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대도시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유학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중의 소외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 마음껏 놀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을 키워가게 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 친구들을 사귀어가는 것을 보면서 캠프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에 비해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환경교육이 좀더 지역으로 파고들어 삶에 밀착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부분별 평가

가. 참가 대상 설정 및 모집

-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 소외층을 배려하였습니다.
- 각 학교에 캠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지리산권 어린이 캠프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공문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최 단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캠프 참가 추천서 만약에 발생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우려되어 아예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통한 추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캠프의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고 교육청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농민회, 전교조 지회 등을 통한 모집에서 호응이 좋았으며, 저소득층이거나 한부모 가정 아동의 선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리산권어린이캠프는 인원이 소규모인 캠프인만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밀착해 있는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앞으로도 모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프로그램 내용

- 계절별, 지역별, 체험별 프로그램의 안배가 적절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계곡이나 숲과 같은 열린 장소에서 자유로운 놀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름캠프의 애초 계획된 물

놀이의 경우 비가 와서 취소되었으나, 그 외 봄과 가을 캠프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자유 시간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으로 빗속 물놀이를 꼽았습니다.)

-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와서 취소된 야의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 상당시간 필요합니다.
- 탐방 장소 방문시, 그 장소에 상주하는 안내자에게 의뢰할 경우, 안내자에 따라 편차가 있음. 캠프의 취지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자유로운 체험과 느낌을 얻도록 안내하기 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강압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체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캠프 기획 당시부터 탐방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충분히 캠프의 취지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진 별도의 안내자를 동반하거나 주최자가 직접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슬라이드 교육의 경우, 2회 있었는데 전체적인 캠프의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로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교육의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의 파괴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리산이 그렇게 아프지 몰랐다는 아이들, 지리산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아이들, 야생동물이 멸종되어 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 여름캠프에서 시도되었던 섬진강 따라 흘러흘러 남해바다까지 가보는 갯벌 체험은 산과 물과 바다가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한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참신한 기획이었습니다.
- 여름캠프의 숙소가 마을 안에 있어 지리산 북부권 마을의 삶의 모습을 오며가며 지켜볼 수 있었고, 한옥을 숙소로 사용하여 대규모 숙박시설과는 다르게 공간이 주는 아기자기함이 있었습니다. (뿔마루로 이어지는 작은 방들, 이야기 공간이 되는 대청마루, 모기장을 치고 몇 명씩 생활하는 작은 방, 멀리 떨어져있고 수세식이 아닌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뿔간, 윗채와 아래채 등 한옥의 입체적 공간이 주는 재미)
- 간식을 사먹을 수 없고 자연 먹을 거리만을 주고, 일회용품을 배제하기 위해 도시락도 직접 싸고, 일체 세제류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수칙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으나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규칙을 나름대로 즐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프로그램 일정 및 진행

- 계절별, 지역별 안배를 위해 세 계절에 걸쳐 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의 경우 실제로 1박 2일 캠프가 어려워 당일 캠프로 진행하다보니 충분한 체험을 하기엔 시간상 제약이 있었습니다.
- 지리산권의 면적이 5개시군 3400㎢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많아 일일이 태워오고 태워가는 진행자들의 수고도 크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간이 모자라 당일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여러날 캠프로 변경하여 대상도 초등부, 중등부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리산 골든벨 퀴즈 대회와 같이 약간의 모둠별 경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모둠별 소속감도 심어주고, 참여자들간의 결속력도 높여주고, 프로그램에 참여도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전체 캠프 비용 예산을 20% 가량 초과하여 자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진행자의 캠프에 대한 의욕은 좋으나 전체 예산에 대한 좀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참가자 평가지 작성 내용

가. 참가 어린이 평가

참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돌린 평가지는 상세한 평가내용이 없고 주로 즐거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음.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캠프를 하고나니 지리산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
- 봄 캠프와 가을 캠프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 처음엔 오기 싫었는데 아주 재미있었다. 내년에 또 오고 싶다.
- 동물을 배울 때 직접 동물을 만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지리산의 많은 친구들과 헤어지기 섭섭하다.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참가 자원교사 평가

- 지리산에 사는 어린이들, 특히 형편이 어려워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어 더욱 의미 있었다.
- 지리산권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프로그램이 계절과 지역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짜여졌다.
- 어린이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캠프였다. (장소, 인원, 먹을거리, 숙소 등)